

알고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이란 인간의 본능이며, 즐기는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사랑과 절제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동안 성을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죄악시 하기조차 해왔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에서는 성이 무질서하고 문란해지며, 가정의 파탄과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의 원인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가율로 성병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앞으로 성병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전국 13개시도 지부에서도 치료를 할 방침이다.



① 유럽에 옮겨진 원주민의 풍토병

성병중에서 가장 무서운 매독은 “콜롬부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였을 당시에 원주민들 사이의 풍토병이었던 것이 1493년에 처음으로 유럽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사회가 혼란했으므로 매독은 불과 수년 사이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으며, 얼마후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바스코·다·가마”가 소위 “인도항로”를 발견하고, 인도에 상륙한 것은 1498년인데 이때 매독도 같이 인도에 상륙하여 점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4세기초에는 중국인들의 왕래가 활발하여 “서인도양”까지 뻗쳐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1505년경에는 중국의 광둥지

방에까지 매독이 전파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1521년에 매독의 유행이 있었던 기록으로 보아 그때 한국과 중국연안을 설했던 왜구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생각되며 “콜롬부스”의 달갑지 않은 선물은 불과 19년 사이에 세계 일주를 하게 된 셈입니다.

② 나라마다 달리 붙인 병이름

당시만 하더라도 매독과 임질은 구분되지 않은채, 한가지 병으로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병에 대한 호칭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 병을 “인디안 홍역”이라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병”이라 불렀다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 반대로 “프랑스병”이라 하였습니



인도와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는 설과, 남방민족 즉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13세기 이래 우리나라가 겪은 왜란과 호란을 생각할때 이 두가지 설은 다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조 명종 시대 (1546 - 1567년)의 기록에 음창(淫瘡)이라 하여 매독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매독의 역사는 400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또한 인도에서는 “프랑스병”이라 하였고, 일본에서는 “광동창”이라 부르는 등, 서로 자기나라 병이 아님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매독은 그때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던 병이라 하겠읍니다.

③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에 매독이 전해진데 대해서는

성개방의 물결과 성병

① 성의 개방

세계 제 2차 북구(北歐)에서 시작된 성자유화의 물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문명국으로 번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성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성이란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만 알고, 이를 죄악시하여 전통적으로 성에 관한한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다른 서방문명과



함께 받아 들여진 이 물결은 점점 그 파고를 높이면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성윤리관과 가치관에 변화와 혼란을 일으

켰으며, 성 개방에 대한 본질적인 의의나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02-1 (605)4851-2

서울특별시 지부
강서구 등촌동 602-1
605-4057, 3104, 3056
부산직할시 지부
동래구 온천 2동 1438-2
53-5962, 5440
대구직할시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동 139-1
73-5385, 754-3385
인천직할시 지부
인천시 남구 송의동 163-22 삼일B/D
844-7131~2
경기도 지부
수원시 정자동 83-11.
5-1303, 1697
강원도 지부
춘천시 효자 2동 363-7
2-4761, 2-4682
충북 지부
청원군 남일군 지북리 20
2-3614

충남지부
대전시 탄방동 90-8
44-1430, 523-2750
전북 지부
전주시 덕진동 17가 1408-3
3-2061, 72-1493
전남 지부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8-11
33-0447, 0665, 365-4086
경북 지부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9-2
93-5024, 92-9010
경남 지부
마산시 산호동 324-1
2-1606, 5591
제주 지부
제주시 삼도1동 709-10
7-6639